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연합회 현황 보고¹⁾

('19.6.25, 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 ESS France의 설립 연혁

○ 명칭 : Chambre française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 약칭 ESS France, 사회적(sociale) 경제와 연대(solidaire) 경제를 포괄하여 흔히 ESS로 지칭함

○ 설립 : 2014.10.14.(2014년 7월 사회연대경제관련법 시행 계기)

- 동 법령 2장 5조 근거한 공익성 추구 민간단체로 프랑스 정부와 협약체결(발스 총리의 협회 방문 및 아그레망 서명)

※ 사회연대경제관련법 제정의 의의

- ▶ 가치와 원리 위주로 통용되었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법률적 정의를 통해 명확해졌으며 사회적 경제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 현존하는 민간기업과 새로 탄생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음.
- ▶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분야로 범위를 넓혀가고 새로운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포괄적인 법)
- ▶ 동법 제정 이후 2년 동안 600여 개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새로 생겨났음.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역사

- ▶ 19세기 : 사회적 경제 태동(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연합, 소비자조합, 상호공제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구현 조직 발생)
- ▶ 1970년대 : 연대경제 태동(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공동 활동 전개)
- ▶ 1981년 : 사회당 집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부처 인정
- ▶ 1981년 : 집권당과 관계없이 사회적 경제지지
- ▶ 2012년 : 정부내에 사회적 경제부처가 정식으로 설립
- ▶ 2017년 : 사회연대경제관련법 제정

1) 동 보고서는 6.19(수) 프랑스 ESS 협회 방문시 수집한 자료와 협회 측 설명 및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연합회 현황을 주 내용으로 하였고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현황을 부가하였음.

○ 창립 참가 기구²⁾

- CFF(Centre Français des fonds et fondations, 프랑스 기금 및 재단 센터)
- Coop FR(조합형태기업 연합)
- FNM(Fédération nationale de la Mutualité Française, 프랑스 상호공제 연맹)
- AAM(Association des assureurs mutuelistes, 상호공제보험 협회)
- Le Mouvement associatif(사회단체 연합)
- Le Mouvement des entrepreneurs sociaux(MOUVES, 사회적 기업가 연합)
- Conseil national des Chambres régionales de l'ESS(CNCRESS, 사회연대경제 지역연합회 국가위원회)

○ 추가 가입 기구

- L'économie sociale partenaire de l'école de la République (L'ESPER, 학교 및 교육분야 파트너 참가 사회적기업 협회)
- Finansol(연대경제분야 공동체)
- Mouvement pour l'économie solidaire(연대경제 연합)
- Fédération des établissements hospitaliers et d'aide à la personne(병원 및 의료지원 연맹)
- Union des employeurs de l'ESS(사회연대 분야 고용주 연합)

※ ESS France 참가 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상호공제회(4%), 협동조합(12%), 사회단체(83%), 재단(1%) 으로 구성되어 있음.

관련법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범주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ESS 부사무총장은“범주가 넓으면 구분하는 것 보다 서로 연대하는 게 좋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

※ 노르망디 등 프랑스 서부지역의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전통적으로 연대가 강한 지역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함.

2) ESS France는 개별 기업이나 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지 않고, 개별 조합 등의 모임인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음.

□ ESS France 주요 기능

- 회원 단체 간 정보공유 증진
- 정부, 유럽공동체 및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 경제 분야 대변
- 사회연대 경제 분야의 이익과 가치 제고
- 사회연대 경제 분야의 연구와 통계작업 및 공유

□ ESS France 조직

- 본부(파리) + 18개의 레종(광역) 단위 연합회로 구성
- 통계 및 분석 전문 기구 Observatoire national de ESS (사회연대경제 관측소) 1개소 존재
- 전국 연합회 포괄 총 150명 상근직 근무
- 전국 연합회 포괄 총 경상예산 1천1백만 유로 규모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고용현황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규모
 - 가입 기업, 단체 수 : 220,300여개 기관
 - 일자리 : 2백38만 고용으로 프랑스 전체 고용(민간+공공)의 10.5%에 해당하며 민간분야 고용의 14% 차지
 - 사회연대 경제분야 임금 총액 : 630억 유로(약82조원)
 - 사회연대 경제분야 자원봉사인 수 : 2천2백만명(사회단체 포함)
- 프랑스인 일상생활과 ESS
 - 농업인 75% 이상 조합에 가입
 - 국민 개인 임금 중 60% 이상 사회연대경제 소속 은행 이용 처리
 - 취약층 성인 수용(숙식, 재활 등) 기관중 73%가 사회단체 형태로 운영

○ 사회연대 경제 고용의 특징

- 여성고용 비율 높음(ESS 분야 여성 고용이 68.2% / 기타분야 평균 46.5%)
- 상근직 정직원 고용율 높음(74.6%가 일반직, 11.4% 한시계약직, 전체 64.3%는 풀타임 상근직)
- 재활고용 비중 높음(ESS 전체 고용 중 8.8%가 재활형 고용)
- ESS는 사회복지 분야(전체 고용의 60.4%) 및 레저·스포츠 분야(55.4%) 제1의 고용주
- 은행, 보험, 기금 분야 기업 고용의 29.9%가 ESS 형태
- 공연 및 예술분야 고용의 25.8%, 교육 분야 18.7% 고용이 ESS 형태
-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한 성장 기록(경제침체 심했던 2008년 민간기업 -0.1%로 고용이 감소한데 반해 ESS분야 5.5% 증가, 연대의식의 발로로 해석)
- 현대적 혁신적 경제운영 형태에 적합(재활용,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개발, 유통단계 단축 판매, 세대·지역·계층 형평성 추구 서비스 등)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부지원

○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원은 크게 3가지 분류됨.

- 첫 번째 유형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 공공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최대 비용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
 - ▶ 5만개 이상의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개 20~30%의 운영비용을 공공지원금으로 충당
 - ▶ 근래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유료서비스나 Funding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두 번째 유형으로 제공서비스에 비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에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탁하는 형태임.
 - ▶ 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해당되며, 비용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 세 번째 유형은 공공분야 입찰시 사회적 기업에서 응찰·선정되는 방식으로 사회연대 경제 분야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SOS, Espace 등에서 다수 참여
 - ▶ 최근 EU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더 경쟁력 있게 응찰할 수 있는 지원 강령을 만들었다고 함.
 - ▶ 2024 올림픽 준비에 필요한 건설 및 운영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입찰에 반드시 사회적 기업을 써야한다고 함.
-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는 민간들이 개인 자격으로 기획해서 시작한 사업들로, 사회적 환원이 중요함에도 이익창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중앙 및 지방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의 감시 감독을 수반하게 되고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갈등도 있다고 함.
- 현 마크롱 정부는 시장경제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함.
 - 현 정부는 정부지원 형태 중 3번째 유형인 공개입찰 방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우버와 같은 사례에서도 보이듯 연대보다는 개인 활동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
 - 이에 ESS France에서는 최소한 고용문제만이라도 지키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함.